호텔신라, 中서 벽화그리기 등 사회공헌 활동 호텔신라가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을 국내를 넘어 해외로 넓힌다. 호텔신라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틀간 중국 길림성의 소도시(송원시 이열단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화장실 개조를 위한 기공식을 비롯해 ▲신라호텔 셰프가 만드는 한국 간식 문화체험 ▲학교 외관 벽화 그리기 ▲기증 물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신라면세점 코리아사업부장 김태호 전무를 포함해 신라호텔 셰프, 신라면세점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호텔신라

하이트진로, 창원서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안전캠페인 하이트진로가 창원시와 함께 국민안전캠페인에 앞장선다고 3일 밝혔다. 주류 기업 최초로 100년 기업을 앞두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국민안전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창원시 상남동 지역의 상가, 업소와 마산어시장, 상남시장, 국가유공자 가구 등 화재취약계층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를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 창원시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시민, 학생 등 530여명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

韓日 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

윤휘종의 잠시 쉼표

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 위안부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보복이자,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란 평가다.

전쟁의 공식이 그러하듯이, 일본은 우리의 예봉을 꺾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핵심이자 주춧돌인데, 그걸 흔들겠다는 포석이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외무성을 주축으로 우리 대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을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추가로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전쟁은 외교 갈등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가 아니라 경제 분야인 '핵심 소재 수출규제'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으로 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한다. 이런 점을 일본이 몰랐을 리 없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하자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는데, 최종 승소 판결은 올해 4월에서야 확정됐다. 이번 사안도 비슷할 것이다. WTO에 제소해서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몇년은 지나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 '백색국가'라는 혜택을 주다가 없앤 것일 뿐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규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명확하다. 우리도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 일본의 취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노렸듯이 우리도 일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외교 갈등을 경제 분야로 끌어들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이 깔아놓은 멍석에서만 싸워야 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안에 대응은 하되, 우리가 유리한 곳에 '전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 일본 내 극우파의 표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이 고래잡이를 다시 시작해 국제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쟁은 명분이 중요하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G20 정상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 이런 문구를 제안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여론조성도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는 극우로 치닫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소리도 높다.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하면 한·일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부품·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도 있다. 부품·소재 국산화는 벌써 수십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해묵은 숙제다. 그 동안 축적한 자본과 기술로 이제는 부품·소재·정밀산업 육성에 힘써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장애인, 문화예술서 소외받지 않아야"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 출범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조직 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 위원회 출범식에는 김홍걸 대회장(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홍이석 조직위원장((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고재오 집행위원장((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사무총장)이 참석해 행사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성공개최의 결의를 다졌다. 또한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장애·비장애를 넘어선 공감을 강조했다.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홍걸대회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라며 "예술적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조직 위원회 출범식.

"문화예술의 장에서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Festival'은 장애인들의 잠재적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을 모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어려움 극복, 모범적 다문화가정·단체 시상

하나금융나눔재단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개최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지난 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제11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 구현에 기여하고자 국내 최초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국 규모의 시상식으로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수상자는 지난 4월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후보들에 대해 3개월 간의 전문가 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날 시상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우딴신(U 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 키란 사켜(Kiran Shakya) 주한 네팔 대리대사, 응우엔 부 뚜(Nguyen Vu tu) 주한베트남 대사,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해 총 12명의 개인과 3개의 단체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지난 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제11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모범적인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행복가정상과 희망가정상이, 다문화가정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는 행복도움상이 수여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상은 네팔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경남 함양에 거주 중인 결혼 13년차 주부 김예진 씨가 수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한양증권 ◇부서장 △전략금융부장 전용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역센터장 △호남권연구센터장 이길행 △서울SW-SoC융합R&BD센터장 나중찬 ◇본부장·단장 △지능정보연구본부장 민옥기 △초성능컴퓨팅연구본부장 김영균 △지능형반도체연구본부장 권영수 △지능로보틱스연구본부장 최정단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장 김일규 △네트워크연구본부장 김선미 △전파·위성연구본부장 변우진 △미디어연구본부장 이현우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장 정일권 △기술정책연구본부장 이지형 △표준연구본부장 강신각 △정보보호연구본부장 김익균 △미래원천연구본부장 송기봉 △소재부품원천연구본부장 송윤호 △실감소자원천연구본부장 이정익 △광무선원천연구본부장 백용순 △자율무인이동체연구단장 안재영 △IDX+연구단장 우영춘 △기상위성지상국개발단장 안도섭 △스마트ICT융합연구단장 박준희 △도시·교통ICT연구단장 이인환 △복지·의료ICT연구단장 박수준 △에너지·환경ICT연구단장 이일우 △국방·안전ICT연구단장 이용태 △양자기술연구단장 박성수 ◇부장·센터장 △기술상용화센터장 박범수 △R&D사업화부장 박호영 △경영전략부장 손민호 △기술기획부장 진승헌 △사업전략부장 박세명 △품질혁신센터장 이성원 △운영관리부장 임덕환 △인적자원부장 오진환 △재무관리부장 이성진 △정보화·보안센터장 권정국 ◇실장 △감사1실장 정관영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최완욱 △통신미디어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이전호 △지능화융합연구소 연구지원실장 김우현 △ICT창의연구소 연구지원실장 민문홍 △대경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장 서교웅 △호남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장 임상균 △서울SW-SoC융합R&BD센터 연구지원실장 남건우 △중소기업사업화본부 연구지원실장 박창식 △융합기술상용화실장 조원석 △사업화전략실장 박웅 △사업화협력실장 윤수진 △기술이전실장 서태철 △경영기획실장 이인석 △윤리경영실장 성나연 △기술기획전략실장 이승환 △창의원천기술기획실장 김선자 △메가프로젝트기술기획실장 오정훈 △사업전략실장 이상민 △사업기획실장 이강주 △사업조정실장 어윤희 △지식공유협업플랫폼개발실장 김상현 △운영복지실장 신현웅 △안전보안실장 김창수 △인사관리실장 김기정 △인력개발실장 최익봉 △노사협력실장 박정수 △회계관리실장 최원용 △구매조달실장 최욱수 △자산관리실장 장은익 △정보보안실장 김기현 △의전협력실장 함영택
◆IBK투자증권 〈보임〉 ◇부문장 △IB사업부문장 최성권 △자산관리사업부문장 겸 자산관리본부장 유정섭 ◇본부장 △법인주식본부장 김기연 ◇센터장 △IBK WM센터 역삼 센터장 전장석 ◇부/실장 △PIB상품전략부장 박정용 ◇팀장 △IPO2팀장 김성욱 △전문사모운용1팀장 정덕찬 △정보전략팀장 양철수 〈승진〉 ◇상무보 △부동산금융본부장 우규택 ◇이사 △채권운용팀장 박기현 △프로젝트금융1팀장 조성준 △금융상품영업팀 김장문 ◇부장 △FICC영업팀장 최진욱 ◇차장 △IB금융팀 김경진 △종합금융1팀 김영선 △시너지추진실 민혜원 △중소기업분석부 문경준

부음

▲최지남(경향신문 경기남시흥 지국장)씨 별세 = 3일 오전 4시30분, 경기도 시흥시 신천연합병원 특실,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31-310-6440
▲김창명씨 별세, 김규련(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3시, 경남 창녕군 남지읍 경남요양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55-526-2575
▲이성근(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고법 보유자)씨 별세, 영호(시파프레스 한국특파원)·일호·준오·상호(국악인)씨 부친상 = 2일 오후 7시, 전주시 삼성 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5일 오전 8시. 063-247-1003
▲고갑석씨 별세, 고영아·현아·영찬(초당대 교수)·영권(한국일보 멀티미디어부 차장)씨 부친상, 유헌식(단국대 교수)·김용하(전 KCC 상무)씨 장인상 = 3일 오전 6시30분,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50분. 031-961-9400
▲ 전병분 씨 별세, 최관식(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팀장)씨 장모상 = 3일, 충남 천안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41-570-704